

# 50년만에 바뀌는 주류세... 소주 오르고 맥주 내릴 듯

## 종가세→종량세 '주세 개편안'

개편엔 소주 등 도수 높은 술 값 인상  
저렴한 로컬 위스키 값은 오르고  
고가 인터내셔널 제품 하락 가능성

정부가 50년 만에 종가세(從價稅)에서 종량세(從量稅)로 바꾸는 주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가세는 술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술의 용량' 또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소주의 가격이 오르고, 수입맥주 4캔=1만원 행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주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주종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3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는 1969년 종가세를 채택해 '술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터키, 칠



참이슬 오리지널,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16.9(왼쪽)과 카스 프레시. /각사

레, 이스라엘 5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나머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종량세 방식은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세법상 맥주, 소주, 위스키, 와인, 전통주 가운데 증류식 소주에는 72%의 주세가 붙는다. 여기에 30%의 교육세가 붙으며 추가로 주세·교육세 합계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된다. 기타주류로 분류된 청주와 약주는 72%가 주세가 아닌 30%, 막걸리는 탁주로 5%가 부가된다.

소주업계는 종량세로 바뀌면 도수가 높은 소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 20도 소주 기준으로 약 10%의 세금이 추가될 것이라 전망이다. 이에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주종과 차별화를 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스키업계는 로컬 브랜드와 인터내셔널 브랜드의 입장이 나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컬 위스키 브랜드 제품 가격은 오르고, 고가의 인터내셔널 위스키 브랜드 제품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량세를 가장 반기는 곳은 맥주업계다. 현재 국산맥주 출고가는 제조원가에 판매비, 이윤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만 세율을 매기면서 국산보다 판매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이 신고가는 수입사가 현지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꼼수'로 지적돼 왔다.

수입맥주가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맥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종가세로 바꾸면 '수입맥주 4캔=1만원' 행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기재위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산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춘다면 국산맥주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국산맥주를 더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제맥주업계도 종량세 전환을 바라고 있다. 수제맥주업계에 따르면 주세법이 종량세로 변경된다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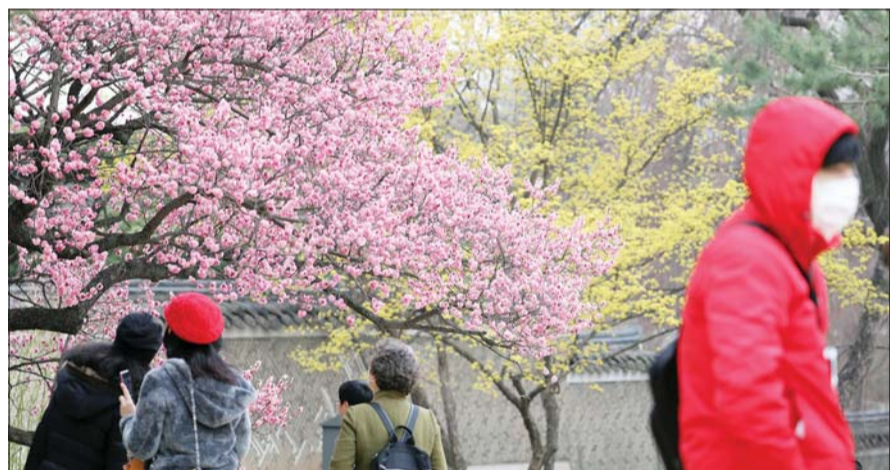
골든블루 사피루스(왼쪽부터), 다이아몬드, 20년 서밋, 22년. /골든블루

제맥주 가격이 약 1000원 정도 낮아지면서 '수제맥주 4캔=1만원' 할인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제맥주업계 관계자는 "국내맥주 시장에서는 고품질의 수제맥주를 시장에 내놔도 주세체계가 다른 수입맥주의 가격과 비교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도 주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 시각도 있다. 지난해에도 모든 주종을 한 번에 전환하는 방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정안이 도출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불만, 국제 수입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주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다시 발주했다. 이달 기재부는 주세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꽃샘추위' 중무장한 나들이객

꽃샘추위가 찾아온 31일 창덕궁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 옆을 쌀쌀한 날씨에 꽤 중무장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FTA 개정협정 '긍정적' 평가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장벽 보고서' 산업부, 자동차 분야 지적 대폭 줄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9일(현지 시간) 2019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발표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년 보고서에도 자동차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올해에는 자동차 분야 지적이 대폭 줄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한 것을 비롯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점을 소개했다.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은 삭제했다.

한국이 주류 라벨에 '알코올이 발암 물질'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한국 정부가 소비자의 국내 브랜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다는 주장도 사라졌다. /세종=최신용 기자

##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 43개월 새 최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가동률지수 97.1... 4달연속 하락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의 지난달 가동률지수(계절조정, 2015년=100)는 97.1로 잠정 집계돼 한 달 전보다 4.0% 하락했다.

가동률지수는 생산능력에 비해 생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5년 7월 91.0을 기록한 후 43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0월에는 11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결과 100 아래로 주저앉았다.

실제로 반도체는 최근 수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감소율도 8.4%, 23.3%, 24.8%로 커지는 상황이다.

관세청 잠정 집계를 보면 3월 1~20일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월 1일 발표될 산업부의 3월 수출입 동향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95.6으로 전월보다 2.9% 낮았다.

2017년 2월의 -4.5% 이후 최근 24개월 사이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6년 10월 95.4 이후 28개월만에 가장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지수를 0.51%p 끌어내리며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하락 기여도 2위는 반도체 제조업(-0.48%p), 3위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32%p)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가동률이 하락했고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땅하지 않으니 전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 제조업이 국제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모비스, '미래기술 개발'에 3년간 4조원 이상 투자

>> 1면 '부품사 모비스...'서 계속

딥러닝 기술을 통한 독자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의 물량 증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현대모비스는 딥러닝과 같은 핵심 기술을 내재화 후 설계와 개발, 양산 주도권을 확보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개발센터장 그레고리 바라토프 상무는 "영상인식 기술개발을 통해 축적한 자체 알고리즘과 노하우는 자율주행과 연관된 다른 제품

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ICT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날 미래기술 개발을 위해 계획한 4조원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3년에 걸쳐 4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미래투자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제휴·지분투자,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 연구소장은 향후 인수합병(M&A)에 대해 "현 시점에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 파트너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생각하는 미래차의 방향은 사람을 닮은 차인데, 이를 중점으로 미래차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오픈하는 것 역시 4조원 규모의 투자 중 하나"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윈윈 전략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